

제3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2026년도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의 건 2면

○간사 □□□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제가 좀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 첫 번째 안건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
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예,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 추천된 저 ○○○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저 ○○○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님 의견 따라서 같이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의 건

(15시 11분)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인 2026년도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이번에 추진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이번 공무국외출장 추진 경위와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손영준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각자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고 구정 발

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도 해외 방문지 비교시찰을 통하여 현지 우수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하고 주민 편익과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시는 의원 전체가 다양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방문국과 일정을 도출하였으며, 다채로운 현장경험과 성과 공유를 위하여 A, B,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출장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손영준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A팀의 공무국외출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팀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5박 6일 일정입니다.

일본 도쿄의 복합개발과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하여 노원구의 도시공간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쿄역 일대와 미나토미라이21 등 주요 복합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 관리기관과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역할 분담, 공공공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원구 역세권의 생활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녹지·보행환경 개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 B팀은 손명영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출장기간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입니다.

이번 출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주민생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연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복합 공공시설의 조성·운영과 주민 소통체계, 고령친화형 복합개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입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공동체 교류를 촉진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심 녹지와 공원·보행로를 연결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주민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현지 차량 임차료, 통역비, 기관섭외비 등도 예산을 통해 지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10일간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였으며, 총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심사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출장계획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 시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

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 아까 간사님께서 주민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여기 첨부가,

○간사 □□□ 첨부해 드린 주민의견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직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무국외출장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302회 정례회에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하기로 예비심사를 마쳤구요.

10월 12일에 개최될 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 대로, 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대로 충실히 진행하도록 사무국에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안녕하세요? ○○○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기 전에, 이게 내용이 형식적인 문제도 있고 내용적인 문제도 아직, 지금 주민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그렇게 꼭 시선이 따듯한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될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충실해야 될 건데, 그 자료에 보면 지난 9대 의회 공무출장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몇몇 의회는 수사도 받고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경비를 추가로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회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전체가, 아직 결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행정 심판을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면 공개가 언제 될지는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회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노원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간사 □□□ 해당 수사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요지는 의원님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갈 시에는 경비가 위약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이 발생을 했는데 직원분들은 출장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자부담이 없이 예산으로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자부담하신 부분이 직원에게 일부가 공여돼서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그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과 결론이 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자부담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와 일본 출장에서는 저희 자부담 없이 모두 예산으로 충당해서 이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 감사합니다.

○□□□ 위원 또……

다른 분 말씀이 없으시면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외출장에 관해서 많은, 여기 의견 제출서에도 나왔지만, 갔다 오는 게 단순하게 여행 목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행지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그러니까 갔다 온 게 형식적으로 정확히 잘 맞다 하더라도 내용 쪽에서 부실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정을 잡은 곳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복합개발에 관한 내용, 싱가포르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지역공동체에서의 노령화 대책 이런 것들 보는 거는 매우 노원구 현실에 맞아서 딱 의미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지난해, 지지난해에 걸쳐서 노원구에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서울원 개발의 모델이 되는 일본의 모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해외출장, 구청 공무원 직원 출장도 있었고, 구청장도 그렇게 갔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번 구의회가 제출한 그 출장계획서에는 구청장이 다녔던 그 길, 그러니까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모델이 됐던 그런 지역보다는 또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그게 연계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사 □□□ 저희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일본 도쿄 지역에서도 철도역과 연계한 관계 기관이나 어떤 상업시설과의 연계가 된 도시재생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다녀온 그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정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요소를 배울 수 있고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구청 직원들이 다녀온 출장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 예, 맞습니다.

○□□□ 위원 그것도 이번 출장계획 잡을 때 보고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참고하셨는지,

○간사 □□□ 예, 충분히 참고는 하였습니다.

○□□□ 위원 예, 아주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저 ○○○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 게, 지금 국외 출장할 때 대다수 보면 돈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년 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한 의원한테 몰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대다수 보면?

예를 들면 21명이니까 10명 의원 가고 5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260만 원만 가지고 있잖아요.

관행이 어땠었나요, 여기는?

계속 내년에도 그렇게 가나요, 이렇게 나눠서?

○간사 □□□ 두 팀으로 나눠서 가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위원 예, 옛날, 그러니까 2년 치를 몰아서, 10명만 가는 거죠, 한 해에.

○간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여기는, 관행이.

○간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 위원 다, 전원 다 가는 형태로.

○간사 □□□ 예,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는 2년 치 몰아서 가기 때문에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장기적으로 멀리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260만 원 갈 경우에는 계속 3박 4일, 4박 5일,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간사 □□□ 저희는 예산은, 여비는 그거보다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워낙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장거리로 가게 되면 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위원 그러니까요.

○간사 □□□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부담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부담이 없는 국가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도도 지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멀리 공무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 개선된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서 갈 예정입니다.

○□□□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자매결연도시 예산도 있을 텐데, 이번에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간사 □□□ 자매결연도시는 저희가 격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몽골 수호바타르 구를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게 될 예정입니다.

○□□□ 위원 내년에도?

○간사 □□□ 예.

○□□□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불용 처리하나요?

○간사 □□□ 격년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는 상호결연 관련해서는,

○□□□ 위원 아, 편성 자체를 격년으로?

○간사 □□□ 예,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 의원들 뭐라고 안 그래요?

○간사 □□□ 그런데,

○□□□ 위원 대개 4년 동안 다 그렇게 한 번씩 가게끔 하거든, 그래서 자매,

○간사 □□□ 저희는 그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궁금해서 간단한 거 질문 먼저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 ○○○입니다.

저는 제안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출장 목적에 관해서 제가 제미나이, AI한테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이런 목적에 타당한 도쿄와 싱가포르의 어떤 지역을 추천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거의 대동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계획서에 잡은 그런 일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의 목적하고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제가 가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같이 구청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가시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나중에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노원구에 접목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가서 내가 그쪽의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도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보고 가시는 분들끼리 공유를 좀 한다면 가감해서 좀 더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구정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입니다.

○간사 □□□ 예, 위원님 제안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제가 또 다시 해도 될까요?

○위원장 ○○○ 예.

○□□□ 위원 우리 ○○○ 위원님은 제미나이 쓰고, 저는 ChatGPT, 저도 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의견이, 노원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도쿄 같은 경우도 구도심권들 다 재개발되고 있고 다 바뀌고 있거든요.

똑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서 연결되는 상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나 환경, 물론 노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른 도시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또 하나가 제가 옛날에 갔을 때 문제가 질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담당이나 의원님들한테.

꼭 엉뚱한 질문들 많이 해서 그쪽에서도 당황하고.

좀 고급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딱 간단하게 짧게, 짧게 물어봐야 되는데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통역이 막 헛갈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또 하나가 제가 동경, 도쿄 같은 경우는 별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신경 안 썼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노인 복지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 간다면 카펠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여기 국힘 의원님들이 좀 많으셔서 뻔 건지.

왜냐하면 이왕 싱가포르 가는 김에 역사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남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지거든요.

그런 데는 기념지니까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싱가포르 방문한 김에 그 장소도 탐방을 할 수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게 된다면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예.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지금 국외 출장하는 데 스물한 분 의원 중에서 열아홉 분이 참가하고 있는 중인 거죠?

○간사 □□□ 예, 맞습니다.

○□□□ 위원 두 분은 안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말하자면 공무출장인데 안 가는 것도 공무를 회피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더 공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설득 또는 이해, 또 다른 어떤 대안, 이런 게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분들이 안 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남는 부분도 생길 거고 이럴 건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간사 □□□ 일단 참여하지 않으시는 두 분의 의원님은 의장님과 충분한 면담을 거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같이 갈 것을 많이 독려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당의 상황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함께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개인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번에는 함께하기 좀 어렵게 결론이 났고요.

앞으로도 많은 공무출장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최대한 많이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일단 해당 의원님들 몫으로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 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가끔 의원님들이 가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집행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와서 집행부하고 진짜 터놓고 얘기해서 했으

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90년대 말에 영국의 템스강 위쪽을 갔었을 때 거기도 미약하지만 개천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중랑천 같은 경우는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자전거 도로 까는 걸 차치하고 나서 라도 이동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당시 이유는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돼 보니까 무진장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하나가 호주에 갔더니 산에 등산로에 데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은 데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크를 주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 지자체가 하나씩 전국에 있는 모든 야산에는 데크가 다 깔려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거,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고 상권과 연결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좀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예를 들면 저기 아레나가 저쪽에 보이는데 아레나가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창동역에 있는 상권은 작아요.

분명히 노원으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올 길이 아직은 없어요, 다리만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도 제안 사항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도 현실적인 제안을 해서 구청장이 꼭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꼭 그게 나와야 또 생색도 내는데.

해외연수 가서 육은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뭘 했더라는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좀 나올 수 있게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 예, 아이디어에서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제가 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의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금이라고 할까요?

그게 9억 원이었다가 추경을 함으로 해서 12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2억 원.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70억이고요.

물론 학교 수가 좀 다르긴 한데, 학교당 비교를 해도 동대문구는 학교당 한 3억 8,000 정도 지원 풀이고, 노원구는 학교당 1,300만 원 정도 풀인데.

물론 전체 교육예산으로 따지면 어떤 초점은 좀 달라요.

우리 전체 교육지원 예산은 노원구가 많지만 학교, 저희 학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1,300만 원 정도 지원 예산이 서 있고, 동대문구는 3억 8,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 노원

구 쪽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계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간사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 참, 마지막으로 여행사는 결정됐나요, 지금?

○간사 □□□ 예, 여행사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간사 □□□ 두 팀이 다른 회사입니다.

○□□□ 위원 다른 회사예요?

○간사 □□□ 예.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본 계획서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공무국외출장 건은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제가 굉장히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관계공무원

의정팀장 □□□

○외부출석위원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